

고은 불교 대하소설

두 석불

남 각이 갈대정사로 내려와 다시 일 상생활을 함께하는 동안 이곳에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잔재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선사시대의 유목민 한 동아리가 그들이 우세두세 머물렀던 곳에서 떠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같은 약간 낯선 새로움으로서의 일상이었다.

하지만 파도는 언제나 그대로 파도치기를 그치는 일이 없었고 파도소리는 언제나 이곳 사람들의 관심없는 귀에도 들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갈매기의 그 탁한 음성도 파도소리 속에 침철(點綴)하고 있었고 바위 모서리와 갈대정사 지붕은 온통 갈매기 풍으로 하얗게 되고 있었다.

그런 갈매기도 이곳의 사람들이 있으나 미나한 존재로 여겨져서 어떤 때는 합덕이 후원에서 나와 멀리 검은 뜰밭파도로 된 수평선 쪽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어깨에 앉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합덕은 숨을 죽여 그 갈매기가 날아갈 때의 그 힘을 주는 발가락의 바닥을 느낀 나머지 가만히 서 있어야 하였다. 저쪽에서 다른 갈매기가 날개에 파도 위를 찍고 솟아오르는 것과 함께 그녀의

“이 석불과 저 육지에 새겨진 마애불은 서로 마주 보고 있도록 옛 백제시대의 어느 사랑하는 남녀가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바를 이 부처님을 조성함으로써 기념한 것입니다” “과연 허깨비로군”

어깨에 앉아있던 갈매기도 그녀의 어깨에 힘을 주어 날아가 저쪽 파도 위를 높게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 물에도 날개가 있다면...” 하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녀가 그녀 옆에 와 있다가 “이미 합덕스님의 마음에는 두 날개가 달리지 않았습니까?”하고 가만히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말은 파도소리에 묻혀 합덕의 귀에 들어갈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 웃음을 주고 말았을 뿐이다. 우녀가 좀더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저...” 이 말에는 합덕도 “좋은 날이고저...”라고 호응하는 것이었다. 우녀가 합덕에게 새로 정색을 하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나 아까 입정(入定) 중에 허깨비 하나를 보았어요.”

“허깨비라?”

“망상(妄想)이었지. 나도 별 도리가 없어요. 요즘 이런 망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마치 견달사내한테 머리채를 잡혀 끌

“우리 두사람만 겁니까?”

“그럼요. 남정네들이야 파도소리를 법문(法門)으로 들으라 하지.”

지극한 즐거움은 즐거움이 전혀 없음이라(至樂無樂)

이런 말을 어느 바보가 남겼던가. 무욕도의 파도소리에 즐거움이 없다는 법문을 지극한 즐거움의 법문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누구인가. 인당인가, 아니면 불어인가. 그들이 아니거든 남작이란 말인가.

어쩌거나 오후의 작무시간에 앞서 우녀와 합덕은 그들의 키보다 긴 참나무 막대기를 들고 숲속의 침침한 그늘 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새들이 마치 여기저기서 말을 보다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소리를 내고 있었다.

“새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좋겠어요” 라고 합덕이 최근 이상히리만치 요염해진 아름다운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며 말하였다. 그러나 우녀가 그녀의 푸른 빛깔의 인심으로 막았다.

“그런 것 알아들어 무엇하러고?”

“그냥.”

“그냥이라...마음밭에 여러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

이 말은 회양(懷讓)이 제자 마조(馬祖)에게 노래해준 시 한 형(行) 이거니와 그것을 우녀가 알 턱도 없이 그녀의 한마디로 나온 것이다.

그렇진대 옛적 사람이 오늘의 사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아니 새의 소리라고 사람의 말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가슴팍에 흥건히 땀이 배여 산꼭



대기 음악에 이르렀다. 그곳은 남작이 머물다가 내려간 뒤에는 비어있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에도 다람쥐 따위가 드나들었거니와 빈 곳을 다람쥐 몇마리가 한꺼번에 나왔다. 어미가 새끼들을 거느린 뒤 다녀오시다.

이 보내고 있는 신화라도 듣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가슴 속 박동이 울려퍼졌다. 문득 이쪽을 살펴보았더니 무욕도 꼭대기 아래에 줄 어긋난 높은 곳과 저 육지의 높은 곳이 서로 일치되는 것 같았다. 그 사실을 합덕의 지난 시절의 기억 가운데서 찾아낼 수 있었다.

그곳은 태안에서 실컷 남쪽으로 내려간 장기촌 뒷산에 해당하였다. 어린 시절의 합덕이 아버지 등에 업혀서 올라갔던 산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늘 숲에 휘둘러 지내는

것이었는데 그날만은 웬일로 맑은 정신인데 어린 딸을 업고 나선 것이었다.

장기촌 일대는 백제시대의 석불이 여기저기 발두렁에도 함부로 박혀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륵님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서방님이라 하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오른 그다지 높지 않은 산꼭대기에는 그곳의 지세(地勢)와는 상관 없이 아주 험한 벼랑에 새겨진 한 불상이 있었다. 그 불상의 정방향(正方向)은 서쪽 바다 멀리 한 섬 꼭대기의 어느 곳을 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오늘의 이 무욕도 꼭대기 동쪽이었다.

합덕의 뇌리에는 번개가 스쳐갔다.

“스님!”

아래쪽의 우녀가 “왜?”하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이 벼랑을 돌아내려가면 어떻게요?”

“그렇개? 그렇시다.”

그들이 힘겹게 낙엽이 쌓인 비탈을 내려가자 거기 벼랑 앞에 한 돌덩어리가 별도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 본즉 그것은 그냥 서있는

“장기촌 일대는 백제시대의 석불이 여기저기 발두렁에도 함부로 박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륵님 이라고 하였다.”

돌덩어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은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석불이었던 것인데 너무나 오랜 세월을 두고두고 마모되거나 풍화되어서 얼굴 형상도 옷주름 무늬도 알아볼 수 없는 일그러진 돌덩어리가 되고 있었다.

“부처님이신데”라고 우녀가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합덕은 흥분한 상태로 말소리가 마구 떨어졌다.

그녀의 전혀 달라진 자유분방한 상상력은 어린 시절 장기촌 뒷산의 마애불상과 이 섬의 석불은 아침에는 이곳의 석불이 햇빛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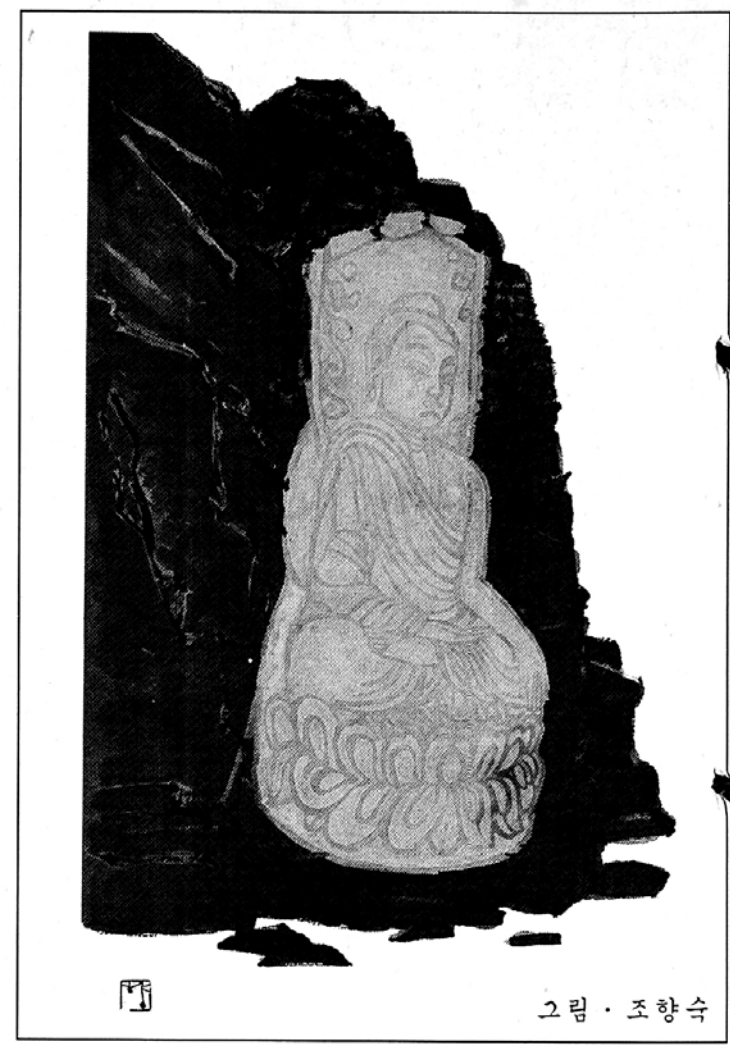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비쳐서 나타났고 저녁에는 장기촌 뒷산의 그것이 저녁 햇빛에 비쳐서 그 모습을 멀리 이곳의 석불이 바라보게 하는 서로 마음을 주고 받는 사이였음을 알아냈다.

합덕은 그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석불을 우녀가 그곳에 있거나 말거나 온몸으로 꼭 껴안고 한동안 서 있었다.

우녀가 범용하게 쓰아졌다. 하지만 합덕은 그런 우녀의 위엄에 구애되지 않았다.

“부처님의 법이 어찌 애욕을 버린 출가자의 것일 뿐이리. 한 출가자와 재가자 사이의 슬프디 슬픈 애욕까지도 그 법 안에 아우르고 있어야 할 것들.”

“합덕스님!”

우녀가 그녀의 푸르른 눈길로 합덕의 세워진듯한 어떤 도취상태를 쓰아졌다.

“합덕!”

드디어 고향소리에 가깝게 크게 불러댄다.

그때서야 합덕이 “꼭 이 돌부처님은 우리 대중 가운데서 남작스님을 닮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우녀쪽을 조짐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어서 돌아갑시다. 내 망상이 이제 도반(道伴)에게 옮겨가서 더 큰 망상으로 되었어!”

우녀가 합덕의 팔을 잡아 이끌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도 나눌 처지가 아닌채로 꼭대기 웅막을 허겁지겁 지나쳐 아래로 내려갔다. 소나무 숲에는 올라올 때의 새소리 따위가 없었다.

1969년, 월북을 기도하다 휴전선에서 사살된 한 젊은 스님의 충격적 구도소설!

下山

이·흥·주·스·님·장·편·소·설

젊은 수행자의 고뇌와 파계,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이야기!

1969년, 유난히 키가 크고 바짝 여윈 한 젊은 스님이 민통선 철책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월북을 기도했던 흥주 스님의 걸방 속에는 자신의 소설 <下山> 한 권이 들어 있었다. 흥주 스님은 왜 월북하려 했을까? 스님은 왜 자신의 소설 <下山> 만을 북한 땅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어떻게 스님이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었을까?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채 급서로 류었던 문제의 소설 <下山>은 28년 만에 다시금 햇빛을 보게 되었다.

최저작 <下山>에 주어진 문학적 평가

- 작가의 직면했던 신앙과 관능, 교단과 사회와의 모순과 갈등이 어실히 표현되어 대담하게 던진 문제작! - 1967년/시인 趙芝鰲
- 젊은 수행자가 겪는 한국 불교의 그늘이 짙음에 모라핀 본격적인 불교 전위 문학! - 1967년/작가 金東里
- 스님들과 신사의 생생하고 현직감 있는 묘사력이나 섬세 대한 긴 사색의 진주알 같은 대화들이 독자물 시론집은 구도소설! - 1995년/문학평론가 임현영
- 구도승의 타락과 그늘을 실감나게 묘사하여 한국 불교에 결집을 울린 소설! - 1995년 5월 28일/한국일보

블지사 편집부 (02) 277-2676 4x6판/양장본/248쪽/값 5,500원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상과 말씀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는 경전

법구경의 세계

이원삼종이 신국판 / 398쪽 / 7,000원

법구경은 단순히 도덕적 교훈만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 속에는 광활한 불법의 세계와 불교사상의 전원이 담겨져 있다. 불교학이 지닌 지적인 자리가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한 설명을 비롯, 각각의 계층에 맞는 경전 속의 직결된 비유와 예화,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여러가지 경합을 들어 설명하고 있어 법구경의 진수를 읽으면서 체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도서 출판 온 주 사
서울 중로구 청진동 6번지
(02) 720-8372 · 3 FAX (02) 723-0646

알림

鏡峰 大禪師 제 13週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일 시 : 1995년 6월 24일
(음 5월 27일) 오전 10시

■ 장 소 : 통도사 극락선원

■ 연락처 : 0523)82-7083 7950

1995년 6월 일

통도사 극락선원